

HAPPY NEW YEAR 2024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IFEZ의 2024년을 기대합니다

IFEZ JOURNAL

2024. 1+2 VOL.115

IFEZ



Vol.115



www.ifezjournal.co.kr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IFEZ JOURNAL

2024. 1+2
IFEZ BIMONTHLY MAGAZINE



CONTENTS

BUSINESS

- 04

PREVIEW

2024년 주요 사업 미리보기
- 06

SPOTLIGHT

월드헬스시티포럼
- 08

HEADLINE

NSIC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협력
폴란드 카토비체 경제특구(KSEZ)와 맞손
2023 생태환경보전포럼 개최
- 14

ACTIVITY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IFEZ 활동

PARTNERS

- 18

CASE STUDY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 22

PARTNERS

스테이지나인 탐방
IFEZ 입주기업 활동
- 28

SCENE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LIVING & CULTURE

- 30

TOUR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 34

CITY

인천시 일출 명소
- 38

GLOBAL

IFEZ 한국어 말하기 대회
- 40

CULTURE

아트센터인천 신년음악회



GO! 웹진
www.ifezjournal.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01
HOT
ISSUE

SMART CITY

스마트시티 1단계 완료

‘글로벌 미래도시, 스마트 혁신 허브 IFEZ’라는 비전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의 1단계가 올해 내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1단계 단기계획은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진행됐다. 객체·얼굴인식 영상관제, AI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관제, 민원서류 배송 로봇, 스마트교차로, 다목적 자율주행 로봇, 교통신호 정보 개방,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고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 PREVIEW

2024년 IFEZ 미리보기

매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FEZ. ‘글로벌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2024년 IFEZ의 모습을 변화시킬 주요 사업을 미리 짚어본다.

02
HOT
ISSUE

WATER FRONT

워터프런트 1-2단계 완료

송도국제도시에 수로와 유수지 21.2km를 바다와 ‘ㄱ’자 형태로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 1-2단계가 올해 완료된다. 전체 수로 중 9.53km 구간을 연결하는 단계로, 6공구 호수~북측수로~북측연결수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문 1개소, 보도교 2개소, 차도교 2개소, 수변로드 등 주요시설이 들어선다. 1-2단계는 2022년 10월 실시설계 준공을 마치고 지난해 공사가 시작됐다. 1-3단계와 2단계가 끝나는 2027년에 모든 수로가 연결될 예정이다.

03

BIO PROCESS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2024년 말 준공될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연면적 6,60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우수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GMP)에 맞는 바이오 공정 실습장을 갖추게 된다. 128종, 334대의 전문 장비가 설치된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는 아일랜드 바이오 인력 양성 프로그램 ‘NIBRT’를 도입해 매년 2,000명의 바이오 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04

CONNECTED CAR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양방향 무선통신이 가능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다른 차량은 물론 사물 간 통신 연결이 가능해 운전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정보를 제공한다. 커넥티드 카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시험·인증 수행을 진행하는 인증평가센터가 2024년 청라국제도시 로봇랜드에 건립된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100㎡ 규모로 들어서며, 건립 이후에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예정이다.



05

BIO MEGAPLANT

롯데바이오로직스 메가플랜트 착공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조성되는 롯데바이오로직스 메가플랜트. 지난해 메가플랜트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생산시설 발주까지 이뤄진 상태다. 이대로라면 2024년 1분기 내 1공장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1공장은 2025년, 2공장은 2027년, 3공장은 2030년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며 2034년 전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가플랜트의 예상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은 36만 리터에 달한다.



06

MOBILITY

BMW R&D 센터 완공

청라국제도시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자리할 BMW R&D 센터. 지난해 상반기에 착공해 올해 완공될 계획이다. BMW R&D 센터는 독일 본사와 함께 자율주행, 커넥티비티(Connectivity), 전기화 기술 등 독일과 한국의 기술 교류를 통해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제품 개발은 물론 시험 및 검사 등을 수행할 테스트 시설까지 갖춘 예정이어서 인력 확대에 따른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ORLD HEALTH CITY FORUM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월드헬스시티포럼

성공적 개최,

미래 스마트 건강 도시로

한 발짝 나아갑니다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에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WHCF)’이 개최됐다. ‘위험의 세계화, 어떻게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미래도시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2

‘미래도시’ 인천에서 열린 국제포럼

11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 전 세계인이 몰려들었다.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20여 개국과 세계 보건기구(WHO), 글로벌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의 학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 기업인 총 150여 명이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World Health City Forum)’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월드헬스시티포럼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 기후재앙, 저출생 초고령화 등 세계적인 글로벌 보건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솔루션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번 포럼은 인천이 인류를 위협하는 팬데믹과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라는 점을 전 세계에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앞으로도 이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IFEZ 김진용 청장

“세계 초일류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송도에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월드헬스시티포럼이 넥스트 팬데믹과 기후위기 대응을 이끄는 글로벌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1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 2 이번 포럼에는 전문가 총 150여 명이 참가했다.
- 3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 4 연사들의 강연이 펼쳐질 때마다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 5 포럼 마지막 날, 다양한 의제를 모아 ‘인천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모색하는 장으로, 인천시와 IFEZ가 지난해 초부터 적극 추진해왔다. 총 3일간 진행된 이번 포럼 첫날에는 개막식이 열렸다. 포럼 대회를 맡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조직위원장인 서울대학교 유홍림 초장,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총장, 연세대학교 서승환 총장과 녹색기후기금(GCF) 헨리 곤잘레스 부사무총장 등이 개막식에 참석해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사를 전했다.

미래 지속가능 도시 위한 ‘인천선언’

이번 포럼에서는 ‘위험의 세계화, 어떻게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총 50여 개가 넘는 세션과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 기조연설을 맡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넥스트 팬데믹의 위협에 대응하고, 시민과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서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제레미 리프킨은 “앞으로 20년 후면 지구상에서 모든 야생 동식물이 사라질 것”이라며 “모든 생명체를 가족의 일부로 수용해야 비로소 건강한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 팬데믹 극복을 위한 디지털&바이오 기술, 재난 극복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공중보건을 위한 커뮤니티 설계 등 글로벌 보건 위기와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며 극복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도출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포럼 기간 진행된 토론과 논의의 결과를 총합하고, 모든 연사가 검토를 거쳐 최종 합의한 ‘인천선언’을 공식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보건 분야의 형평성, 공정성 및 사회 정의 향상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강화 △탈탄소,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등이 그 내용으로, 앞으로 이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5



NSIC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송도 개발 추진합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힘을 합친다. 국제학교용지 무상 기부채납,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이 체결되며 송도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미개발지 개발 활성화

IFEZ는 지난해 11월, NSIC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03년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수립 후 사업 착수 20년이 흐르면서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가 조성됐다. 현재 전체 개발 진척도 80%를 달성했지만, 최근에는 대내외적 제약이 따르며 개발 추진 속도가 점차 둔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사업 리스크 확대 및 재원 조달 부담 증가, 분양시장 침체, 입주기업 인센티브 축소, 경제자유구역 개발 기조 변화 등 여러 이유가 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송도 미개발지에 대해 새로운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IFEZ와 NSIC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경제, 도시계획, 부동산, 컨설팅, 회계 등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해 수차례 심도 있는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개발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해 현안 타개를 위한 집중적인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다년간 진행된 논의를 종합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시설 용지에 대한 기업 투자유치 기회 확대, △근린 생활시설의 조속한 개발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개발 계획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개발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교육 중심지로 도약

이번 협약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학교용지다. 1공구 I9~10블록에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 각 1개소, 3공구 G5-2블록 근린공원에 초등학교 1개소 등 학교용지가 추가로 확보된다. 또한, 높은 토지 공급가격으로 국제학교를 운영할 우수 외국학교법인을 찾기 못해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있던 NSIC 소유 국제학교용지(F18블록) 71,771㎡가 인천시로 무상 기부채납된다. 국제학교의 경우 현행법상 외국학교법인이 수익을 가져갈 수 없고,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구조였다. 이처럼 학교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유수의 해외 교육기관 유치도 가능해졌다. 특히 글로벌 교육 중심지로서의 이미지가 제고되면서 기업 유치에도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업무시설용지 개발사업의 추진 기회가 확대돼 장기적으로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용 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학교 부족, 국제학교 장기 미개발, 업무시설용지 개발 정체, 3공구 상가 부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등의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며 “NSIC와 힘을 합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

1공구 I9~10블록

초·중학교, 유치원 각 1개소

3공구 G5-2블록

초등학교 1개소

3공구 F18블록

국제학교용지(71,771㎡)



폴란드 카토비체 경제특구와 협력해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유럽 최우수 경제특구, 폴란드 카토비체 경제특구(KSEZ)와 IFEZ가 손을 잡았다.
두 경제특구는 도시개발, 투자유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협력하며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갈 예정이다.

각국 최고 경제특구의 만남

IFEZ가 유럽 최고의 경제특구인 폴란드 카토비체 경제특구 (Katovice Speical Economic Zone)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골자는 △상호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투자유치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 △상호 연락 채널 유지 및 협의의 체제 확립이다. 이번 협약은 IFEZ의 투자유치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상호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희망하는 폴란드 카토비체 경제특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IFEZ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럽과의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1996년 설립된 폴란드 카토비체 경제특구는 실롱스크(Slaski)와 오폴레(Opole) 주 소속 6개 도시로 구성돼 있으며 40여 개 대학, 1백여 개 기계공업고등학교 등이 소재해 있다.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산업은 지역 전체 산업 중 약 62%에 달한다. 오펔(Opel)과 이스즈(Isuzu Motors), 브렘보(Brembo) 등 글로벌 기업과 SK이노베이션, 한국단자공업 등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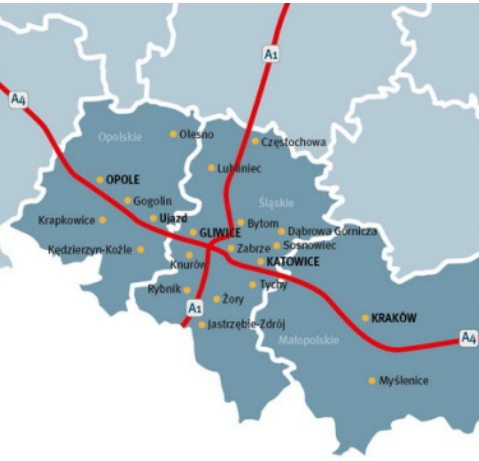
폴란드 14개 경제특구 중 1위

폴란드 정부는 1996년부터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4개의 경제특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법인세 감면 등의 투자 혜택을 받으려면 경제특구 내 정해진 특정 지역에만 투자해야 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경제특구 법령이 새롭게 변경돼 투자기업이 투자 조건만 충족하면 14개 경제특구 내 모든 지역에서 투자금액의 25~50%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폴란드 경제특구 중에서 카토비체 경제특구는 총 7차례(2015~2019, 2021~2022) ‘유럽 최고의 경제특구’로 선정된 곳이다. 대규모 투자와 중소기업 부문 지원에서 유럽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관리 부문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투자유치가 매우 활발한 지역으로, 누적 600여 개의 폴란드 자국기업 및 외국기업이 총 97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10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했다. 생산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폴란드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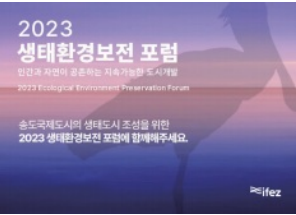
폴란드 카토비체 경제특구(KSEZ)

조성	1996년
구성	실롱스크·오폴레 주 소속 6개 도시
면적	27,490,000㎡
기업 수	600여 개
홈페이지	ksse.com.pl



생태환경보전 포럼 개최, 글로벌 생태도시 조성하겠습니다

IFEZ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향한 발걸음을 땀다. 도시개발과 생태보전의 공존과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생태환경보전 포럼’을 개최해 글로벌 생태도시 조성 계획을 세웠다.



2023 생태환경보전 포럼	
개최	2023년 11월 30일
주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내용	생태도시 개발 방안,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등
참가인원	국내외 생태·습지 전문가 100여 명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IFEZ가 2023 생태환경보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송도국제도시 내 조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송도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포럼에는 IFEZ 김진용 청장,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PF) 사무국 대표 제니퍼 조지(Jennifer George),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한국습지학회 김이형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생태·습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크게 기조강연과 2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세션별 3개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이뤄졌다. 먼저 오충현 한국환경생태학회장이 ‘생태도시 송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이어서 ‘생태 보전과 도시개발의 갈등을 극복하는 공존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됐다. 인하대 김형수 교수, 홍콩 세계자연기금(WWF) 카먼 오르(Carmen Or) 박사, 영국 WWT 베나 스미스(Bena Smith) 수석 연구원이 다양한 정책과 국내외 사례들을 발표했다.



송도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송도 조류 대체서식지의 비전’을 주제로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사업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먼저 황보연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장은 ‘송도에 서식하는 조류의 생태’를 소개했고, 공주대 김이형 교수는 ‘도시 습지의 중요 가치’를 강조했으며,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진배 이사는 ‘송도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동국대 오충현 교수, 인천대 장동우 교수를 비롯한 연설자가 ‘송도국제도시 조류 대체서식지 성공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포럼 개최 하루 전에는 일부 참석자들이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했다. 김진용 IFEZ 청장은 “사람과 자연, 환경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도시 조성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소개된 국내외 우수 사례와 정책들을 반영하고, 송도국제도시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을 통해 IFEZ를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

IFEZ는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글로벌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을 소개한다.

#01



영종하늘도시 ‘자동크린넷’ 인계인수 협약

영종하늘도시 자동집하시설이 오는 2024년 말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IFEZ는 지난해 10월 인천 중구청을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관계자들과 ‘영종하늘도시 자동크린넷 인계인수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IFEZ와 중구청이 운영비와 시설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고 LH와 ih는 노후된 시설 보수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를 각각 비용 부담하는 것에 합의했다. LH는 노후시설을 점검하고 보수를 거쳐 1년 동안 의무운전을 실시하고, 중구청은 2026년까지 시설 인수 후 운영 절차를 밟는다. 주민들이 실제로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예상 시기는 2024년 말이다. 자동집하시설은 집하장 4개소와 지하관로 70.4km, 투입시설 약 2,400개소로 구성된다. 지상에 설치된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으면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처리된다. 기존 차량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03

아일랜드 NIBRT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첨단 바이오 공정시설을 활용한 인력교육과 연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일랜드의 국립교육기관 ‘NIBRT’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IFEZ와 연세대학교 K-NIBRT사업단은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한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 장관 사절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IFEZ 김진용 청장은 참석자들에게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기관인 K-NIBRT의 목표 전략을 공유했다. K-NIBRT는 아일랜드의 바이오 교육 시스템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지난 2021년 아일랜드 NIBRT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시범교육을 진행 중이다.



#02

WHO 인력양성허브 상호협력 기념식 참석

IFEZ가 세계보건기구(WHO) 인력양성허브 상호협력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3 세계바이오서밋’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바이오의약품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WHO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의 성과와 가치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IFEZ는 국제기구와 파트너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WHO는 2022년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허브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중·저소득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기관 ‘WHO 글로벌바이오캠퍼스’가 들어선다. 올해부터 연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05

독일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성료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열린 한독상공회의소 한국인 임원 포럼에 참석한 IFEZ는 독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포럼은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의 임원진 커뮤니티로 지난 2008년 결성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인 임원 50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엔지니어링, 파워모듈, 자동화 솔루션 부문 독일기업 다수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IFEZ는 이 자리에서 IFEZ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잠재적 투자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형성했다.



#04

글로벌 재외동포타운 조성 양해각서 체결

IFEZ는 2023년 유치에 성공한 재외동포청 활성화 방안으로 글로벌 재외동포타운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인천글로벌시티(주)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IFEZ는 외국인 정주요건 조성의 일환으로, 재외동포들의 정주요건 개선사업을 진행해왔다. 2014년 송도아메리카타운을 설립하고 2018년 1단계 I-Park 사업을 추진해 공동주택 830세대를 공급했다. 2단계 사업 글로벌 재외동포타운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공동주택 498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06

첨단 자동화 장비·부품 기업 ‘에어로텍’ 유치

미국의 첨단 자동화 장비·부품 기업 ‘에어로텍’이 투자한 제조·연구시설이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된다. 에어로텍은 레이저 스캐너 분야에서 글로벌 TOP 3에 선정되고, 전자빔 웨이퍼 검사 시스템 분야와 초정밀 모션제어 솔루션 분야에서 글로벌 키플레이어로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에어로텍의 제조·연구시설 애니모션텍은 2026년까지 송도 4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송도동 11-7) 면적 5,414㎡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08

영종국제도시 하늘문화센터 재개관

IFEZ는 시민들의 역량 개발과 문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영종국제도시 하늘문화센터 내·외부를 시민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지난해 10월 재개관했다. 1층에 자리했던 사무실은 주민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의실로 조성했다. 야외에는 바다 전망대 및 소정원을 조성했으며, 특히 LED 경관조명을 설치해 특색있고 몽환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동안 교육 및 문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직업, 어학, 취미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07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 ‘피스티스’ 입주

첨단 로봇 자동화 등 시스템개발 분야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주)피스티스가 송도국제도시에 둠지를 텄다. (주)피스티스는 최근 인천테크노파크 부지(면적 1,970.6㎡)에 산업용 로봇 제조·연구 시설을 완공하고 본사를 이전했다. (주)피스티스는 산업용 로봇 자동화 사업 및 CAD/CAM 분야에서 수년간의 개발·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 첨단 의료산업, 식품, 화학, 화장품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앞선 기술을 발굴하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09

제1회 IFEZ 경관 어워드 진행

IFEZ의 우수한 경관디자인을 뽑는 ‘IFEZ 경관 어워드’가 진행됐다. IFEZ 경관위원회를 거친 건축 계획안 가운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가리는 시상식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경관심의를 통과한 총 170개 안건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공공성, 독창성, 적정성, 합리성 등의 기준으로 수상작을 결정했다. △영종 PIXEL ISLAND 생활숙박시설, △송도 세브란스병원, △송도 이랜드 복합 개발사업, △싸토리우스 송도 캠퍼스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해당 건축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SWEDEN

KISTA SCIENCE CITY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자리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유럽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클러스터다. 글로벌 통신 기업인 에릭슨을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이 입주해 있다. 최적의 입지와 기업-공공기관-대학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갖춰진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를 살펴본다.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1970년대 조성된 ICT 클러스터로, 주변 도시 및 국가와의 우수한 연결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역동적으로 성장했다. 현재 글로벌 IT 대기업을 비롯해 1,200여 개 IT 관련 중소기업 등 1만여 개 기업이 들어서 있다.



◀ Go to Website!
kista.com

kista
SCIENCE CITY

북유럽의 실리콘밸리, 시스타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스톡홀름 중심부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원래 군사기지가 있던 지역으로 1970년대 초반 기지가 폐쇄되자 10여 년간 도시재개발을 통해 주거, 비즈니스, 생활이 어우러진 신도시로 탄생했다. 도시 설립 초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이곳은 1976년 스웨덴 최대 기업이자 세계적인 통신 기업인 에릭슨의 연구소가 이전하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이후 에릭슨의 계열사가 속속 자리하고, 1978년 IBM 자회사, 1980~90년대에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세계적 ICT 기업이 이주하며 북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자리를 굳혔다. 초기 IT 제조업 중심의 클러스터였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ITC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현재는 세계적인 모바일 밸리로 50여 개의 글로벌 IT 대기업을 비롯해 1,200여 개 IT 관련 중소기업 등 1만여 개 기업이 약 7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최적의 입지와 유기적 네트워크의 힘

변화와 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글로벌 ICT 기업이 시스타에 터를 잡은 데는 입지를 빼놓을 수 없다. 우선 스웨덴 최대 국제공항인 알란다 공항과 차로 15분이면 닿는 거리에 자리해 인근 주요 도시와의 연결성이 탁월하다. 무엇보다 기업과 연구소뿐 아니라 주거, 문화, 상업센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설계한 점이 매력적이다. 2000년 이후 인구가 빠르게 늘자 지역의 편의시설 확충과 개선에 발 빠르게 나섰기 때문이다. 덕분에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에는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대규모 복합 쇼핑몰, 학교, 각종 편의시설 등이 조화롭게 들어서 있어 도시 내에서 안정적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는 유능한 글로벌 기업의 인재가 기꺼이 시스타로 이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과 각종 연구소의 유기적 네트워크가 성공적 시너지를 일군 대표적 클러스터로 꼽힌다. 초기 에릭슨을 비롯한 민간기업 주도로 과학 도시의 틀이 조성되었다면, 이후에는 정부와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랐다. 스톡홀름과 에릭슨, 스웨덴 정부는 1998년 ‘일렉트럼 센터(Electum Center)’라는 협력지원 센터를 설립했다. 공공 연구소와 대학, 기업이 입주한 일렉트럼 센터는 산관학연 협력이 일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연구, 세미나, 교류회가 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일렉트럼 재단을 설립해 중재자 역할을 부여했다. 일렉트럼 내 13명의 임원진은 대학에서 3명, 기업에서 3명, 스톡홀름 시장, 시의회 4명, 시스타 운영진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며 클러스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수평적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배양소

공공이 지원하는 안정적 토대 위에서 산학연 협력 또한 더욱 빛을 발했다. 스웨덴왕립공대(KTH)는 1988년부터 시스타에서 학과를 운영해 기업에 필요한 연구인력과 젊은 창업가를 배출했다. 2002년에는 KTH와 스톡홀름대학이 공동으로 시스타에 ‘IT대학’을 설립했고, 에릭슨의 연구기금이 더해져 실력 있는 교수를 임용할 수 있었다. IT대학이 배출한 인재가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에 정착해 연구개발 활동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선순환 고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IT 분야의 국립연구기관인 SISU와 SICS(컴퓨터관련 연구소), IMC(산업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연구소)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가 속속 자리 잡으며 대학과 함께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민간 발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ICT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40년이 넘도록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첨단 ICT 클러스터의 벤치마킹 모델로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초창기 민간기업이 물꼬를 튼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더해지면서 대학, 기업, 연구소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여기에 단순한 기업 도시가 아니라 일상 자체가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나며 장기적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조화와 협력, 연결이 클러스터의 가장 큰 경쟁력임을 증명하고 있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큰 사무실을 다른 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오피스’. 넓은 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1인 기업, 스타트업, 프리랜서는 물론 규모가 있는 기업도 공유오피스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자리한 스테이지나인(STAGE9)은 입주사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차별화된 업무공간 서비스로 입주사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 Go to  YouTube

지금 바로 휴대폰으로 스캔해보세요!
IFEZ 유튜브에서 스테이지나인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공유오피스

2010년대 여럿이 함께 소비하는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급격히 성장하면서 여러 분야로 가지가 뻗었다. 그중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오피스’는 유독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보통 한 건물이나 한 층을 사무실로 임대하려면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공유오피스는 매달 이용비만 내면 사무실과 각종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공유오피스가 등장했다.

스테이지나인도 그중 하나다. 2014년, 전라도 광주에서 시작해 인천 송도,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 하남까지 현재 총 6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특히 다양한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가 위치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는 포스코타워점과 센트로드점 두 지점이 들어서 있다. 2016년 오픈한 센트로드점은 1,000㎡의 규모로, 다양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오피스’와 몰입형 업무공간 ‘다이버나인’, 공용공간 라운지, 회의실, 스튜디오 등의 시설로 구성된다. 1인 기업, 스타트업, 프리랜서와 같은 소규모는 물론 규모가 큰 기업도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센트로드점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 포스코타워에 추가 지점을 오픈했다. 센트로드점과 시설 구성은 같지만 2,000㎡의 큰 규모만큼 오피스의 숫자가 더 많고, 라운지와 회의실도 더 넓다. 또한 카페와 샤워실, 파우더룸 등 편의시설도 추가로 조성했다. 포스코타워점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전망. 송도 내 가장 높은 건물에 입주해 있어 사방으로 송도 전경이 펼쳐진다. 일을 하다 지치면 전경을 바라보며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보유한 스테이지나인 두 지점은 고객 입주율이 95% 이상에 달할 정도로 송도를 대표하는 공유오피스로 성장했다.



STAGE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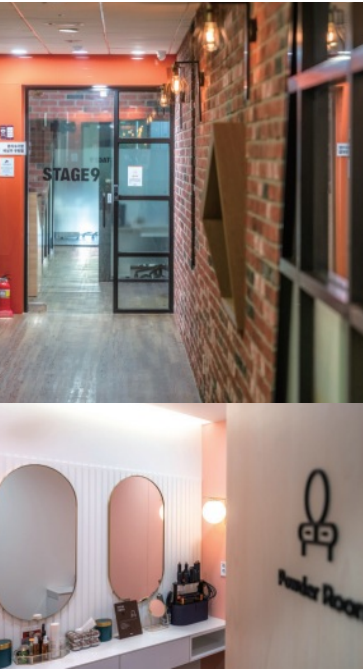
주식회사 스테이지나인

설립일 2014년 6월

업종 사무실 임대, 공간 서비스, 사업 지원, 경영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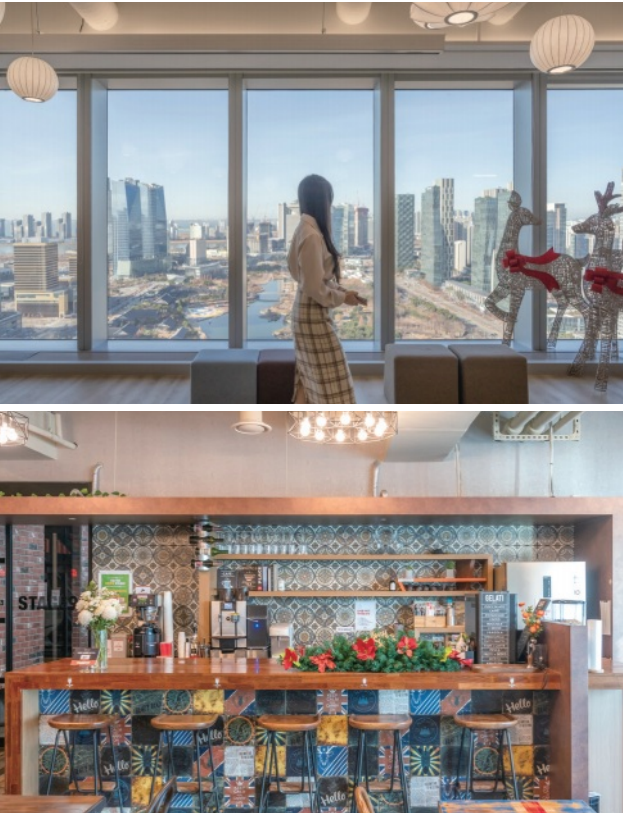
주소 송도 포스코타워점: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26층
송도 센트로드점: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30층

홈페이지 www.stage9.co.kr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

스테이지나인은 단순히 업무시설만 지원하지 않는다. 입주사에게 도움이 되는 멘토링과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1인 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전문가의 조언을 건넨다. 멘토링 및 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이들은 실제 기업 운영에 적용하며 차츰 성장해나간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휴 서비스도 다양하다.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세무, 회계, 노무 분야의 제휴 서비스가 마련돼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 클라우드, 택배, 증권 관리 애플리케이션 등 업종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는 물론 병원, 운동, 호텔, 렌터카 등 업무 외적인 생활 분야 제휴 혜택도 많다. 직원을 채용하는 입주사에게는 최고의 복지인 셈이다. 지난해에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워케이션(Work+Vacation)’ 패키지를 선보였으며, 최근에는 경동나비엔과 협업해 수면실에 숙면매트를 두고 체험 이벤트를 진행했다.



입주사 간 소통도 활발히 이뤄진다. 송도뿐 아니라 스테이지나인 모든 지점에 입주한 약 2만 명의 멤버들과 언제든지 교류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비즈니스 강의를 통해 자신의 기업을 홍보할 기회도 주어진다. 스테이지나인에 설치된 광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기업과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이처럼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스테이지나인은 입주사가 성장하는 산실이 되고 있다. 스테이지나인은 앞으로도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창현 공동대표는 “글로벌 기업이 많은 송도를 중심으로 서울, 하남, 광주 지점의 인프라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히며 미래를 그렸다.

MINI INTERVIEW



정소화

스테이지나인 커뮤니티 매니저

안녕하세요. 먼저 스테이지나인을 소개해주세요.

스테이지나인은 기업과 개인에게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2014년 전라도 광주에 1호점을 개설하며 첫발을 내디뎠고요. 현재는 총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포스코타워점과 센트로드점 두 곳이 있는데요. 각각 2,000㎡, 1,000㎡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사무실, 회의실, OA시설 등 업무 관련 시설과 라운지, 카페, 스낵바, 수면실 등 편의시설을 모두 갖춰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를 택한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송도는 서울 외 수도권 핵심 업무 지역이죠. 인천공항과 가까워 입지 조건이 좋고, 주거 환경과 인프라도 좋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오픈 초기부터 저희를 찾는 고객들이 많았어요. 자신만의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부터 팀 단위의 기업들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입주했죠. 지금도 빈 사무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IFEZ 내 주요 기업들도 스테이지나인을 자주 찾는다고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공간을 이용하나요?

IFEZ 내 본사를 둔 기업 중 TF팀을 꾸리거나 소규모 팀이 별도의 사무실을 찾아야 할 때 저희에게 문의합니다. 꼭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회의실을 자주 이용하고요. 회의실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화상회의 시설도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점 때문에 기업들이 스테이지나인 시설을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공간 임대뿐 아니라 입주사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진행하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우선, 스테이지나인 고객 중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업의 성장 방향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멘토링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깃을 어떻게 설정할지, 어떤 점을 부각할지 등 기업에게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맞춤형 솔루션을 드리죠. 그리고 고객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타사와의 제휴 서비스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세무회계, 클라우드, 택배 등 업무 분야와 호텔, 병원, 렌터카, 운동 등 생활 분야 제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용자가 진심으로 만족하는 최고의 업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Go to Website!

www.stage9.co.kr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CT-P41’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1월 3일 미국식품의약국 FDA에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CT-P41’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셀트리온은 CT-P41의 글로벌 3상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골소실,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 골 전이로 인한 골격계 합병증 예방, 골거대세포종 등 오리지널 제품인 암젠의 ‘프롤리아’(Prolia)와 ‘엑스지바’(Xgeva)가 미국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Full Label)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10월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총 4개국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기 여성 환자 477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3상을 진행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약력학적 유사성을 확인한 바 있다. 미국 내 CT-P41 허가가 완료되면 상호교환성(Interchangeable) 동등 생물 의약품의 지위가 확보돼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대체 처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설립일 1991년 2월 27일
업종 의약품 화학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제품/사업 단백질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3

루다큐어, 골관절염 치료제를 발표했습니다

루다큐어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 류마티스학회(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ACR)에서 연구개발 중인 골관절염 치료 후보물질의 효력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루다큐어가 발굴한 물질은 TRPV1의 활성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TRPV1 활성화억제 효과와 더불어 만성 통증 동물모델에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골관절염은 기존 약물의 장기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약한 통증 경감효과로 인하여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는 등 미충족 의학적 수요가 존재하는 질환으로 그간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도 루다큐어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증 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설립일 2018. 7. 23.
업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제품/사업 연구 및 개발업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9 302호

숨비, 섬 생필품 배송을 완벽 수행했습니다

드론·드론시스템 개발·제조기업 숨비 드론이 정부와 지자체의 ‘주소기반 드론배송’ 시연 행사에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냈다. 지난해 11월 27일 숨비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충남 보령시 등이 공모한 ‘도시지역 주소기반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지원해 지난 6월 멀티콥터 드론(회전식 무인기) 사업 참가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숨비는 지난 5개월간 정부 부처·지자체들과 배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충남 보령시에서 개최한 시연 행사를 무사히 마쳤으며 12월 22일까지 매일 2회 드론을 왕복 운항했다. 통상적으로 차량과 배 등으로 배송하면 58분 소요됐으나, 드론은 20분밖에 걸리지 않아 무려 38분(66%)이나 단축됐다. 숨비는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세계 최고의 드론을 생산할 계획이다.



설립일 2015년 4월 7일
업종 전기장비 제조업
제품/사업 전자장비, 무인기 제조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25

삼성바이오에피스,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제13회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콘퍼런스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사업본부가 주관하며, LMO를 이용하는 기관 중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LMO 관련 법률 준수 ▲LMO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LMO 전용 보관 시설 구축 및 운영 ▲안전 문화 활성화 등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LMO 수출입·입출고 관리와 누락 방지를 위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한다. LMO 전용 보관 시설 구축 및 적절한 환경 유지를 위한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설립일 2012년 2월 28일
업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제품/사업 의약품 연구개발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6



IFEZ 사랑의 연탄 나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데우는 나눔의 온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IFEZ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열렸다.
IFEZ 직원과 입주기업 및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은
이웃에게 연탄과 김치를 나누며 온기를 전했다.



◀ Go to  YouTube

지금 바로 휴대폰으로 스캔해보세요!
IFEZ 유튜브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가호호 찾아가는 사랑의 배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작은 마을. 평소
고요하기만 하던 좁은 골목길이 사람들로
복적이다. 저마다 비닐옷을 챙겨입고 한곳에
모인 IFEZ 직원과 입주기업 및 기관 관계자
100여 명. 2023년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추운 날씨에도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시작에 앞서 IFEZ 투자유치사업본부 김종환
부장이 “이번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분이 참가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인천연탄은행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지계를 메고 연탄을 실었다. 생각보다
무거운 연탄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힘을
내 가파른 골목길을 오른다. 오늘 배달해야
하는 연탄은 총 3천 장. 각자 정해진 집에
도착해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다. 허리를 숙인
채 구석구석 집을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고된 일이지만, 연탄을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주민의 인사에
뿌듯함을 느낀다.

매년 겨울 이어지는 특별한 동행

IFEZ는 매년 인천 내 원도심 복지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난방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연탄을
나눔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486가구에 연탄 31만 4천 장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인천본부와 머크, 아이센스, 안센백신,
에스티젠바이오, HL클레루브, 캄시스,
TOK첨단재료 등 많은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더욱 뜻깊었다. 특히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인천본부는 지난해 10월, IFEZ와 연탄
나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
바 있다. 이번에도 200여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300여 포기도 함께 전달해 따뜻함을 더했다.

MINI INTERVIEW

TOK첨단재료 지원팀 배정숙 책임·임용일 부장

“IFEZ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3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네요.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즐거움 가득한 세계로 떠나는 여행

영종국제도시에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탄생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인근에 들어선
초대형 규모의 휴양시설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솔한 관심과 이목을 끌었던 이곳이
드디어 개장했다. 오감을 자극하는 화려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로 떠나보자.

INSPIRE

ENTERTAINMENT RESORT



◀ Go to  YouTube

지금 바로 휴대폰으로 스캔해보세요!
IFEZ 유튜브에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2



3



4



5

- 1 MICE 평선룸
- 2 포레스트 타워 스위트룸
객실 내부
- 3 총 1,275개의 호텔 타워
3개 동이 있다.
- 4 공간마다 테마에 맞춰
꾸며졌다.
- 5 아트 컬렉션 중 하나인
'Wonder of Light'

초대형 복합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등장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는 착공 이전부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영종국제도시 내 46만㎡에 달하는 부지에 들어설
‘초대형 복합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라는 점 때문이었다.

2016년 해당 부지 입점 업체로 최종 선정된 인스파이어는
인천시 주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차근차근 모습을 갖춰나갔다. 2019년 착공 이후 4년 만인 2023년 11월,
드디어 인스파이어가 문을 열었다. 인스파이어는 보다 빠르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점진적 개장 전략을 택했다.

시기적으로 총 세 번에 걸쳐 개장일을 구분했다.

먼저 2023년 11월부터는 ‘소프트 오픈’이라 부르며 호텔을 비롯해
공원 시설, MICE 시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실내 워터파크(스위밍풀),
일부 F&B 매장을 열었다. 이후 2024년 1분기에 카지노와 리테일 몰을,
2024년 2분기에는 야외 공원과 실내 워터파크(아트랙션), 푸드코트,
실감콘텐츠전시관, 키즈 놀이시설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주소 인천 중구 공항문화로 127

개장 2023년 11월 30일-소프트 오픈

※ 2024년 1분기-카지노, 리테일 몰 오픈 ※ 2024년 2분기-야외 공원, 워터파크 등 전 시설 오픈
주요시설 호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오로라), 공연장(아레나), 워터파크(스플래시 베이),
MICE시설, 리테일 몰(F&B, 쇼핑,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www.inspirekorea.com/ko

문의 032-580-9000

자연을 닮은 세 개의 호텔

인스파이어는 초대형 복합 리조트답게 다양한 시설을 자랑한다. 먼저 호텔은 ‘포레스트, 선, 오션’ 각기 다른 콘셉트를 지닌 3개 타워로 구분된다. 포레스트 타워는 자연 속 도시, 도시 속 자연을 표방하며 숲 색채를 담았다. 평온하면서도 밝은 에너지가 느껴진다. 선 타워는 타오르는 태양의 에너지를 표현해 분위기가 강렬하고 화려하다. 오션 타워는 바다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큰 창과 함께 공간감을 살렸다. 디럭스, 스위트, 럭셔리 빌라 스위트 등 총 1,275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호텔 부대시설로는 스파와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이 있다. 호텔 로비도 특별하다. 각 호텔 타워마다 라운지가 별도로 있으며, 중앙에는 메인 라운지가 조성돼 있다. ‘호라이즌 라운지’라고도 불리는 메인 라운지에는 안락한 소파가 있어 언제나 편히 쉴 수 있고, 라운지 중앙 바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음료와 와인,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FOREST SUN OC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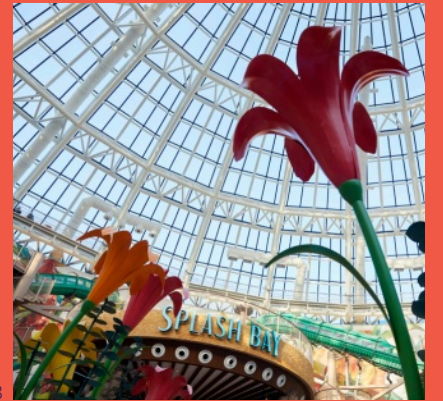


- 1 25m 높이 천장에 조성된 미디어아트 LED
- 2 몽환적인 숲, 어두운 심해 등 미디어아트가 시시각각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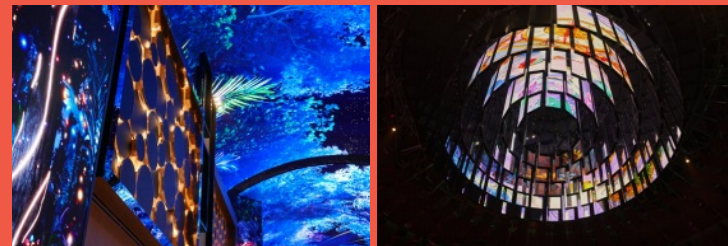
오감을 자극하는 리조트 구석구석

호텔 타워를 빠져나오면 리조트 내 다른 시설과 이어진다.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365일 즐기는 실내 워터파크 ‘스플래시 베이’는 가운데 유리 돔이 있어 실내인데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다양한 어트랙션뿐만 아니라 플로팅 요가, 수중 영화 감상과 같은 특별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고, DJ 부스도 있어 신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인스파이어는 즐길 거리가 가득하지만,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를 꼽자면 미디어아트가 펼쳐지는 거리 ‘오로라’다. 25m 높이 천장에 설치된 고품질 LED 스크린이 150m 길이로 길게 이어져 그야말로 압도적인 미디어아트가 펼쳐진다. 몽환적인 숲, 어두운 심해 등 시시각각 변하는 미디어아트를 보고 있으면 낮이 나갈 정도다.

SPLASH BAY



- 3 365일 즐길 수 있는 실내 워터파크 ‘스플래시 베이’
- 4 눈길을 사로잡는 미디어아트
- 5 위아래로 움직이는 ‘키네틱 상들리에’
- 6 카지노는 2024년 1분기에 오픈할 예정이다.



오로라에서 공연장 ‘아레나’로 향하는 공간 천장에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키네틱 상들리에’가 설치돼 있어 신비로운 경험이 계속 이어진다. 이 외에 리조트 곳곳마다 멋진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다. 아직 모든 시설이 개장하지 않은 소프트 오픈 기간이지만, 이마저도 웬만한 리조트보다 훌륭하다. 무엇보다 아직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아 넓은 리조트를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다. 인스파이어라는 특별한 원더랜드, 영종을 찾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

매일 뜨고 지는 해지만 새해에는 유독 새롭게 느껴지기 마련.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희망찬 시작을 열어가기 때문이다.

인천 곳곳에는 아름다운 일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들이 있다.

어둠이 물러나고 밝게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2024년을 특별하게 맞이하자.

새해의 기운을 맞이하는 인천시 일출 명소

Sunrise Spot

01



야생에서의 특별한 아침

굴업도

인적 드문 호젓한 해변과 독특한 해안침식 지형, 너른 들판과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사슴.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날 수 있는 굴업도는 ‘백패킹의 천국’으로 꼽힌다. 직항 배편이 없어 덕적도에서 배를 갈아타고 1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돼 있다. 굴업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개머리 언덕. 이곳에 작은 텐트를 쳐놓고 하룻밤을 보내면 다음 날 특별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마치 야생에서의 아침이랄까.



02

이국적인 풍경 속 붉은 태양
소래습지 생태공원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밭과 이국적인 풍경의 커다란 풍차, 그 사이로 뜨는 해. 상상만 해도 낭만적인 그림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다면?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색다른 일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350㎡의 넓은 부지에는 전시관뿐만 아니라 조류관찰대, 생태관찰대, 목교 등 조성시설이 조성돼 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취향에 맞는 풍경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른 아침 공원 전체에 피어나는 물안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03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일출
계양산

인천에서 강화 마니산 다음으로 높은 계양산(395m). 인천을 대표하는 산인만큼 오랫동안 인천시민들에게 일출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1시간가량 묵묵히 산을 올라 정상에 도착하면 탁 트인 시야에 인천 섬과 도심의 풍경이 선명하게 들어온다. 동쪽 도심 위로 서서히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모두 일제히 눈을 감고 소원을 빈다. 희망찬 한 해를 열어가기에 딱 좋은 계양산.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어 안전하게 어둠을 뚫고 오를 수 있다.



04

도심에서 마주하는 새해 솔찬공원

송도 남쪽 바닷가에 있는 솔찬공원. 인천대교 건립 당시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들어 나르던 작업장이었다. 이후 방치돼 있던 곳을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로 조성했다. 가로로 길게 뻗은 솔찬공원은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산책할 수 있는 데크가 깔려 있다. 각종 운동기구와 나들이를 위한 피크닉장이 마련돼 있어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인다. 한편에는 몸을 녹일 수 있는 카페와 24시간 편의점 등 편의시설이 있어 따뜻하고 편하게 일출을 기다릴 수 있다.



05

인천대교 위로 떠오르는 해 석산곶

영종국제도시 남쪽 해안도로에 작게 돌출된 곳.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자칫 스쳐 지나가는 조그마한 석산곶은 남들은 잘 모르는 비밀 일출 감상 포인트다. 바로 앞이 바다라 시야에 섬 하나 걸리지 않는 깨끗하고 드넓은 오션뷰가 펼쳐진다. 하이라이트는 바다 중간을 가로지르는 인천대교다. 길게 뻗은 인천대교 아래 지평선에서 해가 서서히 고개를 내미는 풍경. 그야말로 장관이다. 바다 아래에서 올라온 해가 인천대교 주탑 꼭대기까지 다다르는 찰나의 순간을 즐겨보자.



06

독특한 정취의 해돋이 풍경 거잠포 선착장

인천에는 일몰과 일출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그중에서도 거잠포 선착장은 포구가 동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 서해임에도 바다 위로 뜨고 지는 해를 볼 수 있다. 이곳의 일출 풍경 포인트는 정면으로 보이는 무인도 매도랑이다. 상어 지느러미를 닮은 섬 매도랑 바로 뒤로 태양이 떠오른다. 여름에는 해가 다른 방향으로 쏘기 때문에 겨울에만 이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선착장이 카메라를 든 사람들로 북적인다.

07



유람선 위에서 맞는 첫날 팔미도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등대가 자리한 팔미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해군과 등대 관리자만 상주한다. 과거에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됐으나 2009년 제한적으로 개방되면서 팔미도 등대를 둘러보는 유람선이 운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매년 12월 31일, 1월 1일에는 섬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배편이 출항한다. 등대 전망대에서 멋진 일출을 감상한 뒤 등대 점등, 소원캡슐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IFEZ 한국어 말하기 대회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과 인천

지난해 11월,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솜씨를 뽐내는 ‘IFEZ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한국 문화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대회는 2021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3회차를 맞았다.

IFEZ 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예선을 거쳐 총 6개국 12명이 본선에 올랐으며 ‘내가 좋아하는 송도’, ‘내가 경험한 인천’, ‘한국과 나의 인연’,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등 각자의 사연이 담긴 이야기를 전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진행을 맡은 글로벌센터 신환희 주무관은 “한국어를 사랑하는 외국인 여러분 덕분에 대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참가자들을 반겼다. 이어서 IFEZ 김진용 청장은 참가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한국어를 배우고 소통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대회를 축하하는 무대도 마련됐다.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 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이 잠시나마 긴장을 떨치고 아름다운 선율을 즐겼다.

사전 행사가 끝나자 대회가 시작됐다. 가장 먼저 브루나이 출신의 참가자가 단상에 섰다. ‘인천은 언제나 나를 부른다’라는 주제로 인천에서 거주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어서 미국, 일본, 베트남, 몽골, 인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한 베트남 참가자는 작고한 한국인 시어머니를 그리며 눈물을 보여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참가자의 표현력과 한국어 유창성, 이야기 내용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미국의 지젤 라히미(Giselle Rahimi)가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라는 주제의 내용을 발표한 그는 한국어를 배우는 열정을 적극 어필했다. 이 외에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MINI INTERVIEW

대상 지젤 라히미(미국)



“저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어린 시절, 우연히 본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너무 재밌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지난해 한국에 3주간 방문했는데, 그때 ‘나도 한국어를 잘하면 좋겠다’ 싶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대학도 한국에 있는 곳으로 진학했죠. 교수님과 친구들이 대회를 나가보라 권유해서 참가하게 됐는데, 대상까지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앞으로도 한국어는 물론 한국문화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트센터인천 신년음악회
아름다운 선율로
만끽하는 새해의 기쁨

2024년 새해를 맞이해 인천시가 유명 오케스트라 공연을 마련했다.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비엔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가 신년을 맞아 내한한다.
 희망찬 새해와 잘 어울리는 화려한 왈츠와 폴카를 감상해보자.



화려한 왈츠와 폴카의 선율

1월 14일, 아트센터인천에서 신년음악회가 열린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Vienna Johann Strauss Orchestra)’가 내한해 즐거운 공연을 펼친다. ‘왈츠의 왕’이라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다. 이번 공연은 오스트리아 페스티벌 ‘오페라 부르크 가르스’의 음악 감독인 요하네스 빌드너(Johannes Wildner)가 지휘를 맡는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서 <트리치-트라치 폴카>, <레몬 꽃이 피는 곳>,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등 요한 슈트라우스의 다양한 곡이 펼쳐진다. 그의 동생 요제프, 에두아르트는 물론 슈트라우스의 경쟁자였던 칼 미카엘 지러, 헝가리 작곡가 프란츠 레하르의 음악도 포함됐다. 100분 동안 총 12곡의 음악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아트센터인천 클래식홀에서 진행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휘자를 중심으로 부채꼴처럼 퍼져있는 팬(PAN) 타입의 형상을 하고 있어 관객이 더욱 몰입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설렘으로 가득한 신년,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며 음악 세계에 빠져보자.



비엔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일정 2024년 1월 14일(일) 오후 5시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

프로그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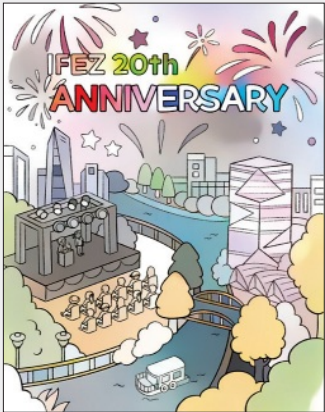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오페레타 <박쥐> 서곡
 요제프 슈트라우스 - 불타는 사랑, Op.129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트리치-트라치 폴카, Op.214
 - 레몬 꽃이 피는 곳, Op.364
 - 멜로디-카드리유, Op.112
 - 빈 기질, Op.354
 칼 미카엘 지러 - 들어오세요, Op.518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크라펜 숲속에서, Op.336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 - 브레이크 없이, Op.238
 프란츠 레하르 - 금과 은, Op.79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관광열차 폴카, Op.281
 -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Op.314

내가 그린 IFEZ
<IFEZ 저널> 색칠 이벤트 당첨자

<IFEZ 저널> 114호 컬러링 ‘IFEZ 20주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IFEZ가 오색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김상언(남동구 간석동)



박유담(연수구 연수동)



백명숙(계양구 계산동)



진희경(서구 가정동)



박선하(연수구 송도동)



추지영(계양구 계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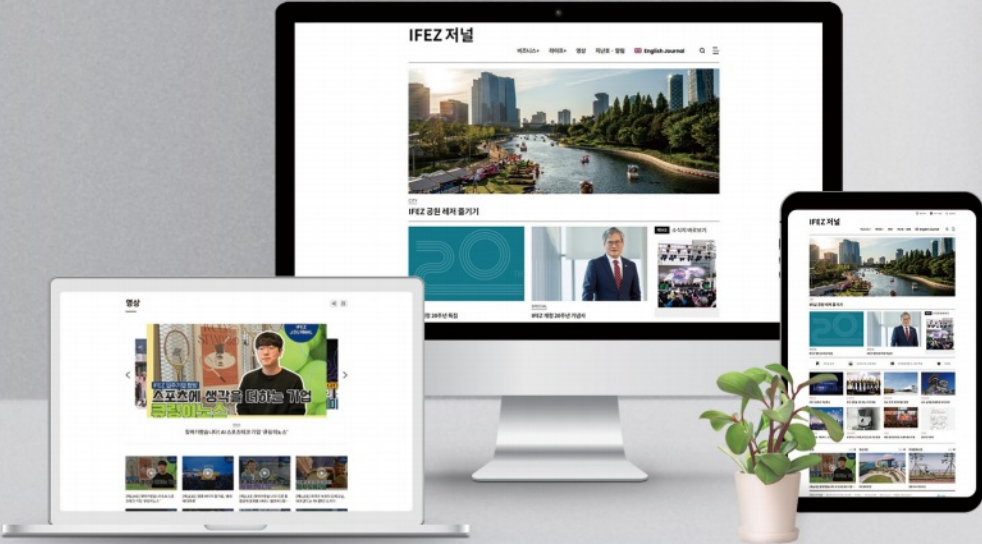
염다현(남동구 구월동)



김주완(서울시 은평구)

IFEZ저널

웹진 통합 운영 안내



IFEZ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이 담긴 저널을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발송해드렸던 IFEZ 저널을 온라인 사용자 확대에 따라
웹진과 모바일북으로 제작,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4년부터는 개인 발송이 중단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IFEZ저널 웹진 주소
www.ifez.go.kr/journal